

들어가면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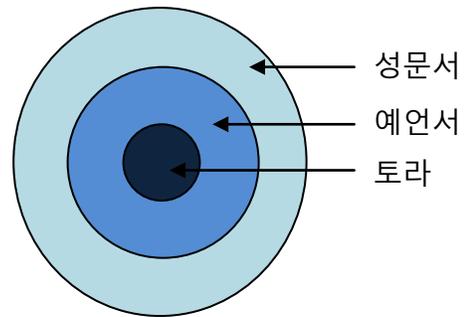
질문: (구약)성서를 어떻게 공부할까? (Historical, Literary, Theological)

- 역사적: 역사비평(Historical Criticism)=> 역사적 관점
  - 이스라엘은 고대근동(ANE)에서 후발 주자. 곧 당시 문화와 역사 배경 속에서 출발
  - 사회-과학적 접근 (Social-Science Criticism)
- 문학적: 문학비평(Literary Criticism)
  - 역사비평의 하나인 19 세기 자료비평(Source Criticism)과의 차이=> 최종형태에서 출발
  - 문자적 이해에서 문학적 이해로
- 신학적: 이데올로기비평(Ideology Criticism)=> 메시지를 담은 책이라는 이해
  - 학문에서 생활(삶)로=> 아카데미/신학교에서 교회로 (공부하지 말자는 말이 아님. And beyond!)
  - 개인에서 공동체로=> 기복신앙에서 사회참여로
  - 남의 이야기에서 내 이야기로=> 신학 다시하기

A. 왜 구약성서인가? (차이/difference 를 통한 이해)

1. 히브리성서(TaNaK): 3 등분 구조

- Torah(토라/가르침): 창세기, 출애굽기, 레위기, 민수기, 신명기 (5 권)
- Neviim(예언서): 전기 예언서(여호수아, 사사기, 사무엘, 열왕--4 권); 후기 예언서(이사야, 예레미야, 에스겔, 12 소선지서--4 권)
- Ketuviim(성문서): 시편, 잠언, 욥기, (5 개 두루마리: 아가서, 룯기, 애가, 전도서, 에스더), 다니엘, 에스라-느헤미야, 역대기 (11 권)  
=> Total: 24 권



히브리성서 동심원 구조

2. 구약성서: 4 등분 구조

- 오경: 창세기, 출애굽기, 레위기, 민수기, 신명기
- 역사서: 여호수아, 사사기, 룯기, 사무엘상하, 열왕기상하, 역대기상하, 에스라, 느헤미야, 에스더
- 시편/지혜문서: 욥기, 시편, 잠언, 전도서, 아가서
- 예언서: 이사야, 예레미야, 애가, 에스겔, 다니엘 + 12 소선지서
- ⇒ 히브리성서 중, 사무엘, 열왕기, 역대기, 에스라-느헤미야를 각각 둘씩 나누고 (4 권=>8 권), 소선지서를 구분(1 권=>12 권). 24 권이 39 권으로. 로마카톨릭과 동방정교회에는 더 많은 성서가 포함됨. (Handout "히브리성서과 5 가지 구약성서 비교" 참조)
- ⇒ 성문서를 재배치. 다니엘이 역사서에서 예언서로. 히브리성서(타나크)에서 5 개 두루마리(Megillot, Scrolls)는 본래 주기적(cyclical)인 유대명절과 관련 읽히던 것인데—

아가서(유월절), 롯기(맥추절/오순절), 애가(예루살렘/성전붕괴), 전도서(장막절),  
 에스더(부림절)—구약성서의 배치 속에서는 연대기적(chronological) 역사성이 중시.  
 ⇒ 그 결과, 성서의 흐름이 역사 속에서 과거에서 현재로, 현재에서 미래로 진행.

3. 신약성서와의 관계

- 복음서: 마태, 마가, 누가, 요한
  - 역사서: 사도행전
  - 시편/지혜문서: 바울서신 및 다른 서신들
  - 예언서: 요한계시록
- ⇒ 구약성서와 맞물려, 신약성서의 구성이 새로운 이스라엘(정체성) 형성에 초점.  
 ⇒ 구약성서, 특히 예언서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(사 40:3; 말 3:1=> 막 1:2), 성취한 것으로 이해.  
 마찬가지로 계시록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그림.

B. 성서와 종교(宗教)—오뎀 가르침

1. 근본적 물음. 신(神, God)이 왜 등장하나? 근본적인 것을 재확인하는 과정.

- 당시에는 인간의 궁극적 관계를 신과의 관계를 통해 확인(시 14:1). 신이 인간사에 직접 관여하는가 하는 물음은 또 다른 문제 (= > 제 3 신학, 지혜문서의 물음)
- 예언서(예언자)들은 모세의 가르침(토라)에 입각/근거해 새로운 사회상황에서 그 가르침을 새롭게(상황에 맞게) 전함.
  - ⇒ 왕하 17:7-23 =>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에 대한 신학적 조명
  - 13 절: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(cf. 신 18:15-22).
  - ⇒ 수 1:7-8
  -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(토라)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....
  - ⇒ 말 4:5 보라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
- 성문서에는 더 이상 새로운 환경에서 하느님이 (예언자를 통해) 무슨 새로운 말씀을 하실까 기다리지 않음. 왜냐하면 더 이상 예언자가 없을 뿐 아니라, 모든 것이 토라(가르침, 오경, 율법)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. 고로 질문이 있느냐? 성서(토라와 예언서)를 보라!
  - ⇒ 시 1:1-2 복 있는 사람은 .... 오직 여호와와 율법(토라)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(토라)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
  - ⇒ 다니엘서 3 장: 다니엘의 세 친구, 사드락, 메삭, 아벳느고 이야기 (환란 중에 의인이 마땅히 취할 행실. Cf. 기독교에서는 다니엘서 7 장—앞으로 어떻게 될까?—이 주요 관심사.)

2. 나는 누구인가? 어떻게 살아야 하나?

나는 누구인가? 이를 구약성서식으로 질문하면, 내 하느님이 누구인가?

- 신 32:8-10 이해. 자신의 정체성 확인  
 신 32:8-9 (표준새번역)<sup>8</sup> 가장 높으신 분께서 여러 나라에 땅을 나누어 주시고, 인류를 갈라놓으실 때에 a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갈라놓으셨다. (a. 사해 사본과 70 인역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효대로)<sup>9</sup> 그러나 주의 몫은 그의 백성이니, 야곱은 그가 차지하신 유산이다.
- 출 20:3 "네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"=> 어법상, 네 앞에 다른 남편을 두지 말라와 같은 표현방식. 다른 신, 다른 남편이 없다는 말이 아님. 정체성 선언.
- 신 6:4 "우리의 하나님은 야훼이시다" (공동번역)=> 주(야훼)가 우리 하느님이시다(יהוה אלהינו).
- 막 1:1 예수 그리스도=> 예수가 그리스도시다.

나가면서. 성서를 어떻게 읽을까?

눅 10:25-26

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(토라)에 무엇이 기록되었으랴 내가 어떻게 읽느냐

-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었는가? 정체성 문제.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? 무엇이 배웠나?
- 어떻게 읽는가? 어떻게 이해하는가? 어떤 눈(perspective),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읽는가? 그런 물음.
- 누구나 똑같이 읽는다면, 질문도 대답도 무의미. 결론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(대부분 이것은 힘의 논리와 맞물려 결론지어짐) 그 이해/대답대로 사는가 하는 문제다.  
 ⇨ 예수의 대답. 그대로 (네가 읽은대로/이해한 대로/믿는 대로) 살라!  
 ⇨ 또 생각하기. 그러면, 아무렇게나 내 멋대로 살기만 하면 되나? (기독교정신인 예수의 가르침에 근거하고, 이것이 또한 동시대를 사는 다른 사람에게도 말이 되어야. 기독교 용어로=> 구원을 줄 수 있어야.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에)

-----  
생각해 보기.

1. 동방정교와 서방교회의 차이는?

2. 사해문서가 우리들의 구약성서 이해에 미치는 영향은?